

사교육비 부담과 가계의 소비지출

The Burden of Private Educational Expenditure and Consumption Expenditure

성균관대학교 가족경영·소비자학과
조교수 이성림*

Sungkyunkwan Univ. Dept. of Family Life Management and Consumer Studies
Assistant Professor : Lee, Seong-Lim

〈Abstract〉

Using the data from the Family Income & Expenditure Survey, this study investigated (1) the factors determining the level of burden of the private educational expenditure in households; (2) the influences of the level of the burden of private educational expenditure on the other household expenditures. For the analysis of data, Chi-square, GLM, Multinomial logit, and Seemingly Unrelated Regression were applied. The major findings were: (1) The factors associated with the burden of private educational expenditure were the number of students by each of the school levels, housing tenure, location of residence, educational attainment of householder; (2) Households with the lower level of burden of the private educational expenditure adjusted the allocation of the expenditure shares of food, utility, and transportation and did not reduce the levels of consumption. Households with the higher level of burden of the private educational expenditure adjusted the extensive ranges of the household expenditure shares and reduced the levels of consumption.

▲주요어(Key Words) : 사교육비지출(private educational expenditure), 소비지출(consumption expenditure), 인적자본투자(human capital investment), 경제적 복지(economic wellbeing)

1. 서론

우리 사회에서 사교육문제는 어제, 오늘의 단기간의 문제가 아니다. 과열과외는 뿌리 깊은 사회적 병폐로 자리 잡은 지 오래이다. 1960년대부터 과열과외에 대한 정책적 대책이 시작되었고 1969년 중학교입시를 폐지하고 무시험 추천배정을 실시하였으며 이후부터 고등학교 입학에 위한 입시가 과열되어 중학생 과외가 성행하자 1974년에는 고등학교평준화정책을 시행하였다. 이어서 대입 경쟁이 가속화되고 이로 인한 과열과외가 사회문제화 되었고 1980년에는 급기야 과외를 법으로 금지하여 단속하기에 이르렀다(양승실, 2001). 이후 80년대 중반부터 점차로 규제가 완화되었지만 여전히 과외수업에는 많은 제약이 있었다. 그러다가 1989년 대학생 과외가 허용되고 이어서 1991년에

초·중·고생 학기중 학원 수강이 허용됨으로써 사실상 과외수업이 전면적으로 허용되었다. 자녀수가 감소하고 가계의 경제수준이 과거보다 크게 향상된 오늘날 사교육 열풍은 과거 어느 때보다도 극심하다고 볼 수 있다.

사교육의 문제점은 교육적 측면이나 균형적인 인간발달 면에서 뿐 아니라 분배적 정의, 계층이동, 사회통합, 경제적인 인적, 물적 자원 낭비 등 여러 가지 측면에서 문제점들이 지적되고 있는데 본 연구에서는 사교육으로 인한 가계의 경제적 부담에 초점을 두고자 한다.

OECD 교육 통계에 따르면(OECD, 2004) 우리나라의 GDP 대비 교육 지출 비율은 2001년 현재 8.2%로서 OECD 국가 가운데 최고를 기록하고 있는데, 주된 이유는 이 중 사부담율이 3.4%나 되어 사적 부문의 교육비 지출비중이 세계 최고 수준으로 높기 때문이다. 이처럼 우리나라에서는 사적인 교육 투자 규모가 매우 크며 그만큼 가계의 사교육비 부담도 크다고 볼 수

* 주 저 자 : 이성림 (E-mail : clothilda@skku.edu)

있다.

사교육비 문제는 크게 두 가지 사안으로 요약된다. 하나는 교육 기회의 불평등 문제로서 가계소득과 부모의 학력, 직업 등 가계의 사회경제적 지위가 높은 가계에서 사교육비 지출도 크고 이러한 차이가 자녀 세대의 학력 차이를 불러오고 부모의 사회경제적 지위가 다음 세대로 이어지는 순환의 고리를 형성함으로써 소외계층의 상실감을 심화시키고 사회정의와 사회통합에 거스르는 작용을 한다는 점이다. 다른 하나는 사교육비로 인해 가계의 지출 부담이 증가하여 생활의 질이 저하되는 한편 고령화 사회에 살고 있는 부모의 노후 경제적 대비가 불가능하다는 가계 경제 문제이다.

가계의 사교육비 문제에 대해 많은 선행연구가 행해졌으며 대부분의 연구는 가계의 사교육비 지출에 미치는 사회인구학적 변수의 영향을 분석하여 사교육비 지출이 큰 가계와 적은 가계의 특성을 밝힘으로써 사교육이 교육기회의 불평등을 야기한다는 구체적인 증거들을 제공하였다(김인숙·여정성, 1996; 문숙재·김순미·김성희, 1996; 정영숙, 1997, 박기백, 1998; 유형선·윤정혜, 1999; 김시월·박배진, 1999; 박미희·여정성, 2000; 이승신, 2002; 이은우 2004; 김현진, 2004). 소비자학 분야에서 사교육이 가계경제에 주는 부담에 대한 연구가 다수 이루어졌는데, 주로 사교육으로 인한 주관적인 경제적 부담감을 분석하여 어떤 가계에서 부담감을 크게 느끼고 있는지 알아보고 있다(김인숙·여정성, 1996; 정영숙, 1996, 1999; 백배진, 1997; 김시월, 1999; 이승신 2002)

가계의 사교육 부담감은 최근에 보다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2000년 통계청 사회통계조사에 따르면 학생이 있는 가계 중 교육비에 부담을 느낀다고 응답한 가계는 약 72%, 이 가운데 사교육비가 부담된다는 경우는 56%였던 것에 비해 2004년에는 부담을 느끼는 가계가 77%로, 사교육비가 부담된다고 가계는 64.6%로 증가하였다. 2004년 교육인적자원부 실태 조사 결과에서도 우리나라 전체 사교육비 규모는 2001년 10.7조였던 것이 2003년에는 13.6조원으로 크게 증가하였고 과외를 받는 학생의 비율도 2000년 58.2%였던 것이 2003년에는 72.6%로 매우 급격한 증가를 나타내고 있다. 대체로 사교육 지출이 클 것으로 예상하지 않았던 저소득층과 중소도시 지역에서도 과외비 지출 규모가 상당히 큰 것으로 조사되어(교육인적자원부, 2004), 사교육비 부담 문제는 우리나라 전체 가계에 해당하는 거국적 사안으로 다루어져야 할 것 같다.

사교육비가 가계에 부담이 된다는 여러 선행연구와 조사 결과에도 불구하고 구체적으로 가계경제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고 소비생활에 타격이 주는지 상세히 분석한 연구는 활발히 진행되지 않았다. 본 연구에서는 가계의 사교육비 문제를 사교육비 지출 차이에 따른 교육불평등 문제로서가 아니라 가계의 경제 문제로서 접근하여보고자 한다. 사교육비 지출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학생의 수와 학교급의 영향을 세부적으로 분석하고 거주 환경적인 영향을 고려함으로써 사교육비 문제를 학생이 존재하

는 가계의 보편적 문제이고 우리 사회의 구조적인 문제임을 밝히고, 사교육비 부담이 가계의 소비지출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함으로써 사교육비 부담으로 인하여 가계의 소비생활에 어떠한 변화를 초래하는지를 파악하고자 한다. 실증적인 자료 분석 결과를 통하여 사교육 문제를 개별 가계의 사적인 문제가 아니라 우리 사회의 보편적이고 구조적 문제임을 뒷받침하는 증거를 제시함으로써 사교육 문제와 사교육 시장에 대한 보다 적극적인 적절한 공적인 개입의 타당성과 필요성을 지지하고자 한다. 사교육비 부담으로 인한 가계의 생활수준이 얼마나 저하되는지 분석한 결과는 사교육비 부담을 경감시키는 조치가 성공한다면 평균적으로 어느 정도 가계 경제를 개선시키는 효과를 얻을 수 있을지 추정하는데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으리라 기대된다.

II. 선행연구 고찰

1. 가계의 사교육비 지출에 관한 선행연구

사교육비지출과 관련된 주요 연구 주제는 사교육비 지출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무엇인지에 대해서다. 가계의 사교육비지출 수준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을 밝힌 연구에서 가계소득이 매우 중요한 사교육비지출 수준의 결정 요인으로 나타나고 있다. 대구, 경산 지역에 거주하는 중·고등학생 학부모 514명의 사교육비지출 실태를 조사한 정영숙(1997)에서 소득수준이 높을수록 사교육비 지출이 많게 나타났다. 김인숙·여정성(1996)은 서울에 거주한 초등학교 2, 4학년생 학부모 761명에 대한 조사자료를 이용하여 사교육비 지출수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하였는데 가계소득이 많을수록 사교육비지출 수준이 높게 나타났다. 1993년 대우패널자료를 분석한 문숙재·김순미·김성희(1996), 한국노동연구원의 2000년 한국노동패널 자료를 사용하여 연령이 고등학생 이하인 자녀를 가진 가계의 사교육비지출을 분석한 이승신(2002), 일반계 고등학교 2학년생 602 가계의 사교육비지출 조사자료를 분석한 유형선·윤정혜(1999), 1997년 한국소비자보호원 과외비실태조사 자료를 분석한 박미희·여정성(2000)에서도 소득이 사교육비지출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요인으로 나타났다.

가계의 사교육비지출 수준은 자녀의 연령과 수에 따라 유의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 문숙재의(1996)에서 교육비지출은 첫 자녀가 중고등학생이거나 대학생인 경우, 자녀수가 많을수록 자녀의 교육비 지출이 증가하였다. 이승신(2002)에서도 자녀가 중고등학생일 경우 취학전이나 초등학생의 경우보다 사교육비 지출액이 높다고 밝히고 있다. 박미희·여정성(2000)에서는 한 자녀 가계보다는 두 자녀 가계에서 가계가 사교육비를 많이 지출하였고 첫째 자녀가 중학생인 집단의 사교육비지출이 가장 많고 고등학생, 초등학생 집단의 순으로 많게 나타났다. 1993, 1995, 1996 대우가구패널에 나타난 사교육비지출은 분석한 박기

백(1998)에서도 자녀수가 증가할수록 사교육비 지출이 증가함을 보이고 있다. 2002년 노동패널자료를 통하여 이은우(2004)에서는 자녀의 출생순서와 성별 등 사교육비 지출에 미치는 자녀 특성의 영향을 보다 자세히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자녀수가 증가할수록 가계의 사교육비는 증가하나 학생 개인별 사교육비는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출생순서가 내려갈수록 사교육비 지출이 감소하였으며 아들과 딸 사이의 사교육비 지출 차이는 나타나지 않았다.

여러 선행연구에서 가계소득과 자녀 특성 이외에 사교육비지출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인으로 부모의 학력과 직업, 거주지역이 나타나고 있다(정영숙, 1997; 김인숙·여정성, 1996; 김시월·박배진, 1999; 박기백, 1998; 박배진, 1997; 이승신, 2002; 박미희·여정성, 2000, 이은우 2004, 김현진 2004).

Becker & Tomes (1986)가 개발한 자녀에 대한 부모의 인적 자본 투자에 관한 의사결정 모형에 따르면 인적자본 투자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은 자녀로부터 기대되는 인적자본 수익률(자녀의 능력 수준), 예산제약으로 작용하는 재정지원을 할 수 있는 부모의 경제 여력, 그리고 자녀 인적자본 축적에 대한 부모의 선호도로 요약된다. 자녀수가 감소하더라도 자녀의 질(quality)에 대한 부모의 수요가 커지면서 인적자본투자가 확대됨을 경제모형을 통하여 보여주고 있다. 가계소득, 자녀특성, 교육에 대한 부모의 선호도를 반영하는 부모 개인 특성 변수들이 사교육비 지출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난 이상의 선행연구 결과는 Becker & Tomes (1986)의 이론적인 모형이 시사하는 바를 지지하고 있다.

2. 사교육비 지출 부담과 소비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선행연구

가계의 사교육비 지출로 가계가 받는 부담감에 대한 연구가 다수 행해졌다. 김인숙·여정성(1996)에서는 학습교육비가 재능교육비보다 가계에 주는 부담이 상대적으로 크게 나타났고 다수 가계가 사교육비를 많이 부담하면서도 주관적인 압박감은 많이 느끼고 있지 않다고 밝히고 있다. 박배진(1997)은 첫 자녀가 중학생인 가계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사교육비가 재정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시월(1999)에서 사교육부담감이 클수록 가계의 경제적 복지감이 낮아지고 사교육비 지출이 큰 가계의 경우 오히려 가계의 경제적 복지감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정영숙(1996)에서는 사교육비 수준이 높을수록 가계의 경제적 복지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승신(2002)에서는 분석대상 학부모의 약 70%정도가 사교육비에 대해 경제적인 부담을 느끼고 있었고 사교육경제부담 정도가 높은 가계일수록 가계의 경제적 어려움을 많이 인식하고 가족수입만족도도 낮았다.

사교육비로 인한 경제적 부담에 관한 선행연구에서 서로 상반된 결과가 나타난 것은 경제적 복지를 리커트 척도로 주관적

인 부담감으로 측정하여 사교육비 지출에 대해 충분히 이루어졌을 경우의 안도감과 과도한 사교육비 지출로 인한 경제적인 압박감이 서로 다른 맥락에서 독립적으로 측정된 결과일 수 있다. 이은우(2004)에서는 사교육의 경제적 부담을 가계소득에서 사교육비 지출이 차지하는 비중으로서 객관적으로 측정하여 사교육비 부담을 분석하였는데 이 경우 사교육의 경제적 부담은 소득이 증가할수록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인숙·여정성(1996)은 사교육비 지출이 다른 가계소비지출에 미치는 영향을 고찰하였다. 사교육비지출 수준에 따라 상, 중, 하 집단으로 가계를 구분하고 집단별 식비, 주거비, 피복비, 잡비의 소비지출 비중에 차이가 있는지 분석한 결과 사교육비 수준이 높은 집단에서 가계의 비목별 지출 비중이 낮은 것으로 나타나 가계는 사교육비 지출로 인해 기타 비목의 지출을 억제해야 하는 어려움을 겪고 있음을 보여주었다.

대도시의 중고등학생 자녀에게 사교육을 시키고 있는 주부를 대상으로 조사한 자료(1995년 조사자료)를 사용하여 사교육비 지출이 소비패턴의 내재적 구조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정영숙(1999)에서 사교육비 지출은 식료품, 피복비, 여가활동비 등과 유기적인 관계를 가지고 있으며 소득이 감소하거나 사교육비지출이 증가할 경우 식료품비는 줄이지 않지만 피복비와 여가활동비를 줄여 사교육비의 부족한 부분을 충당한다고 밝히고 있다. 정영숙의 다른 연구(1996)에서 사교육비가 다른 소비 항목들과 더불어 가계의 경제적 복지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비목별 지출 비중을 독립변수로 하고 주관적인 경제적 만족감을 종속변수로 하여 회귀분석을 한 결과 사교육비, 식료품비, 보건의료비의 지출 비율이 높을수록 주관적인 경제적 복지감이 하락하는 경향을 발견하였다. 독립변수에 소비항목의 절대액수를 사용하지 않고 총소비지출액에 대한 항목별 구성비율을 이용하였는데 그 이유로서 첫째, 절대액수는 소득의 차이를 나타내기 쉬운 반면 지출비중은 소비패턴의 차이를 반영하고 있고, 둘째, 그 자체가 소비의 상충관계를 내포하고 있으며, 셋째, 지출의 항목별 구성비에는 소비자의 욕구와 필요가 내재되어 있음을 들고 있다.

본 연구에서 사교육비 부담이 소비지출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알아보기 위하여 가계의 사교육비 부담 수준에 따른 소비지출 비목별 지출 비중과 지출 금액 차이를 분석하여 보고자 한다. 선행연구 결과를 참고하여 사교육비 지출 부담은 총소비지출 중 사교육비 지출 비중으로 측정된 객관적인 척도를 적용하였다.

III. 연구방법

1. 연구문제 및 변수의 정의

본 연구의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첫째, 사교육비 부담 정도에 따라 가계소득과 소비지출, 사교육비 지출 부담은 어느 정

도인가? 둘째, 가계의 사교육 부담 정도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는 무엇인가? 학교급별 학생수, 거주지 특성, 관련 사회인구학적 특성의 영향을 검토함으로써 우리나라 사교육비 문제의 특성을 고찰한다. 셋째, 사교육비 부담 정도는 가계의 다른 소비지출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

사교육비는 가구원의 과외학습, 학원수강, 예체능학원 수강, 사무 및 전산학원수강 등을 위한 가계의 월평균 지출금액으로 정의하였다.

본 연구에서 사교육비 부담 정도는 정영숙(1999)에서와 같이 총소비지출 중 사교육비가 차지하는 비중으로 측정하였다. 사교육비 부담을 지출 금액으로 측정할 경우 소득이 증가함에 따라 함께 증가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경제적으로 여유 있는 가계에서 지출 수준이 높다 하더라도 반드시 부담 수준이 높음을 의미하지 않고 따라서 가계의 사교육비 지출에 의한 경제적인 부담을 제대로 알려주지 못하는 문제가 있는데, 사교육비가 차지하는 비중으로 측정하면 이러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사교육비 비중은 소득보다는 총소비지출을 기준으로 측정함으로써 사교육비 지출과 다른 소비지출 사이의 trade-off 관계를 파악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사교육비 비중이 사교육비 부담 측정 방법으로서 적절한지 확인하기 위하여 사교육비 비중과 소득 및 지출 수준사이의 상관관계를 살펴보았다(<표 1>). 사교육비 지출 비중과 금액간의 높은 상관관계는 사교육비 비중이 높은 경우 지출액수도 높음을 의미한다. 또한 가계소득과는 매우 낮은 수준의 정의 상관관계를 보이지만 사교육비 이외의 기타 소비지출 수준과는 높은 수준의 부의 상관관계를 나타내고 있어서 사교육비 비중은 가계의 사교육비 부담을 적절하게 반영한다고 판단된다.

<표 1> 사교육비 비중과 소득 및 지출 수준 사이의 상관관계

구분	가계소득	사교육비 지출	공교육비 지출	기타 소비지출
상관계수	0.10***	0.86***	0.04	-0.68***

*p<0.05, **p<0.01, ***p<0.001

2. 자료

본 연구에서는 2002년 도시가계조사 원자료를 분석자료로 사용하였다. 도시가계조사는 한 달을 기준으로 매일 매일의 수입과 지출에 관한 사항을 품목별로 가계부에 기입하는 방식으로 조사하기 때문에 사교육비와 다른 소비지출에 관한 상세한 자료를 제공한다. 도시가계자료는 도시에 거주하는 가구원수 2인 이상의 근로자 가구에 대해서만 소득 자료를 제공하고 있어서 분석대상은 임금이나 봉급을 받아 생활하는 2인 이상의 도시근로자가계로 한정되었다. 따라서 분석대상 가계는 연간 소득과

지출에 관한 정보를 알 수 있는 1년 12개월 동안 가계수지 자료를 제공하는 가계로서 적어도 한 명 이상의 유치원생, 초등학교생, 중고등학생이 있는 가계들로 구성되었다. 이에 따라 분석대상 가구는 1,129 가구를 포함한다. 표본의 특성은 <표 2>에 나타나 있다.

<표 2> 표본 특성

변수		빈도(%)
가구주 교육수준	중학교 이하	148(13.11)
	고등학교	527(46.68)
	전문대	115(10.19)
	대학교 이상	339(30.03)
가구주 직업	관리·전문직	137(12.13)
	준전문직·기술직	135(11.96)
	사무직	201(17.80)
	판매 및 서비스직	117(10.36)
	숙련 기능직 생산 노동직	225(19.93) 314(27.81)
전업주부	621(55.00)	
주택 소유	764(67.67)	
자동차 소유	801(70.95)	
거처유형	아파트	525(46.50)
	단독주택	441(39.06)
	기타	163(14.44)
거주지	서울	204(18.07)
	기타	925(81.93)
· 구분		평균(STD)
가구주 연령		40.91(5.84)
거처사용면적		18.77(5.97)
가구원수		3.96(0.83)
학생수	유치원생 수	0.30(0.52)
	초등학교생 수	0.75(0.74)
	중고등학생 수	0.56(0.69)
	대학생 이상 수	0.08(0.28)
	전체 학생 수	1.80(0.66)

3. 분석방법

사교육비 부담 수준에 따라 가계를 5분위로 구분하였다. 사교육비 부담 5분위 가계 구분은 총소비지출 중 사교육비가 차지하는 비중을 크기 순서로 배열한 다음 가계 수를 5분의 1씩 나누어 비중이 가장 작은 5분의 1을 1분위로 하고, 순서대로 순위 번호를 부여하여 사교육비 비중이 가장 큰 5분의 1을 5분위로 하였다. 사교육비 부담별 5분위 가계의 소득과 지출, 사회인구학적 특성의 차이를 분석하기 위하여 빈도 분석과 카이제곱검정, 평균과 GLM 분석을 하였다. 사교육비 부담과 관련된 변수를 파악하기 위하여 사교육비 부담 5분위의 범주형 변수를 종속변수로 하여 다범주 로짓분석을 하였다. 사교육비 부담 5분위별로 소비지출에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 고찰하기 위하여 총

소비지출과 비목별 지출금액, 비목별 지출비중을 종속변수로 하고 사교육비지출 부담을 나타내는 5분위를 독립변수로 하여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회귀분석은 비목별 회귀식의 오차항 간의 상관을 통제하기 위하여 Seemingly Unrelated Regression Model(SUR 모형)분석을 하였다¹⁾. 사교육비 부담이 소비지출에 미치는 독립적인 영향을 살펴보기 위하여 소비지출에 대한 다른 변수의 영향을 통제하고자 가계소득과 다른 가계특성 변수와 학교급별 학생수를 통제변수로 독립변수에 포함하였다. 회귀모형에 서로 관련된 여러 변수들이 독립변수로 포함되어 있어서 독립변수간의 다중공선성은 Condition Index를 통하여 검토하였다.

IV. 분석 결과

총소비지출 중 사교육비 지출비중을 기준으로 사교육비 비율 최하위 1분위와 최상위 5분위로 가계를 다섯 집단으로 구분하여 각 분위별 지출과 소득의 차이를 살펴본 결과(<표 3>과 <표 4>), 사교육비 비중 1분위 가계에서 사교육비는 전체 소비지출의 1%에 못 미치는 매우 낮은 수준이고 중간수준인 3분위에서 6.48%, 5분위에서 3분위의 약 세배에 육박하는 수준인 약 18%를 차지하고 있다. Scheffe Test 결과 각 분위별로 사교육비 비중에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사교육비를 제외한 소비지출은 다른 교육비 지출(공교육비와 문구비 및 교재구입비 포함하나 공교육비가 거의 대부분을 차지하므로 이하부터는 공교육비로 지칭하고자 함)과 다른 모든 소비지출로 구분하여 살펴보았다. 공교육비는 2분위에서 9.04%를 차지하여 다소 높게 지출은 사교육비 부담이 적은 순서대로 비중이 높게 나타났다. 사교육비 비율 5분위별로 소득과 지출 금액의 차이를 살펴본 결과 사교육비 지출 비중이 가장 낮은 1분위에서 가계소득과 총소비지출이 낮아서 경제수준이 가장 낮게 나타났다. 사교육비는 1분위에서 5분위로 갈수록 지출금액이 높아지고 분위별 차이도 크다. 1분위의 사교육비 지출 월평균 금액은 1만원, 중간인 3분위에서 7만원, 사교육비 부담 수준이 가장 높은 5분위에서 37만원으로 나타나 분위별로 사교육비 부담 차이가 매우 큼을 알 수 있다. 공교육비는 2분위에서 월평균 18만원으로 월평균지출 금액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가계의 사교육비 지출은 학생 수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에 분위별 유치원, 초등학교, 중고등학교에 다니는 학생수를 살펴본 결과 사교육비 부담 분위가 높아짐에 따라 학생수도 점증하는 양상을 나타내

고 있다. 그러나 사교육비 부담 정도가 클수록 학생 1인당 사교육비 지출 수준 또한 높고 분위별 학생 1인당 사교육비 지출의 차이는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 3> 사교육비 부담 5분위 분포

(단위:%, 평균(STD), 월평균)

구분	전체	1분위	2분위	3분위	4분위	5분위	GLM (F 값)
변도(%)	1129 (100.0)	225 (19.92)	226 (20.02)	226 (20.02)	226 (20.02)	226 (20.02)	
사교육비 비중	7.76 (6.37)	0.79 (0.61)	3.47 (0.86)	6.48 (0.90)	10.26 (1.36)	17.78 (4.90)	1775.10***
scheffe		e	d	c	b	a	
공교육비 및 기타교육비 비중	7.47 (6.21)	7.72 (7.46)	9.04 (7.55)	7.52 (5.56)	6.56 (4.94)	6.50 (4.59)	6.44***
scheffe		ab	a	ab	b	b	
기타 소비지출 비중	84.77 (8.41)	91.48 (7.57)	87.49 (7.57)	86.00 (5.58)	83.18 (5.00)	75.72 (6.74)	180.70***
scheffe		a	b	b	c	d	

*p<0.05, **p<0.01, ***p<0.001

분위별로 사교육비 부담이 지출 비중과 지출 규모 면에서 뚜렷한 차이가 나타난 데 비해 가계소득과 가계지출은 분위별로 격차가 크게 나타나지 않고 있다. 분위별 가계소득은 언 듯 보기에 평균값이 차이가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2분위부터 5분위 사이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나타나지 않고 있다(사교육비 부담이 같은 분위에 있는 가계 사이에 소득의 차이가(분산이) 큰 것으로 보인다). 기타소비지출은 사교육비 부담이 가장 큰 5분위에서 월평균 155만원으로 가장 낮은 수준으로 나타나 과도한 사교육비부담으로 인해 소비생활에 압박이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 그러나 가계소득에 유의한 차이가 없고 사교육비 지출 부담이 분위별로 뚜렷한 격차가 있다면 다른 소비지출은 분위별로 차이가 나타날 것으로 예상되는데, 모든 교육비를 제외한 소비지출 수준이 분위별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아서, 가계소득과 사교육비 부담, 다른 소비지출사이의 관계가 모호하게 나타났다. 따라서 사교육비 부담 분위의 특성에 대한 보다 세부적인 분석이 필요하다. 다음 절에서는 사교육비 부담 분위별 가계특성이 어떠한지 분석하였다.

1. 사교육비 부담에 영향을 미치는 사회경제적 특성

다른 변수의 영향을 통제하지 않고 사교육비 부담 5분위별로 사회경제적 특성에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 살펴본 결과 가구주 교육수준과 직업, 가계의 자산보유를 반영하는 주택 및 자동차 소유 여부, 거처사용면적과; 주거유형; 그리고 사교육비 부담과

1) 각 지출 비목은 총소비지출의 하위 구성부분이기 때문에 각 비목의 회귀방정식은 독립적인 회귀식으로 간주하기보다 상호 연관된 여러 개의 종속변수들의 함수체계로 구성된 Multivariate Regression Model로 취급되어야 한다. 이러한 함수식 체계를 Seemingly Unrelated Regression (SUR) 이라고 하며 함수식을 하나의 체계로 함께 추정하는 경우 보다 효율적인(efficient) 회귀계수를 추정할 수 있다.

<표 4> 사교육비 부담 5분위별 소득 및 지출 분포

(단위: 만원, 월평균)

구분	전체	1분위	2분위	3분위	4분위	5분위	GLM (F값)
가계소득	301 (144)	261 (125)	298 (149)	307 (156)	323 (145)	315 (136)	6.43***
scheffe		b	ab	a	a	a	
총소비지출	196 (77)	176 (79)	195 (77)	197 (77)	206 (70)	206 (79)	5.79***
scheffe		b	ab	ab	a	a	
사교육비	16 (15)	1 (1)	7 (3)	13 (5)	21 (8)	37 (18)	489.05***
scheffe		e	d	c	b	a	
공교육비 및 기타	15 (13)	13 (14)	18 (16)	14 (12)	13 (12)	14 (12)	4.04***
scheffe		b	a	ab	b	ab	
기타소비 지출	166 (68)	161 (76)	171 (71)	170 (70)	171 (59)	155 (60)	2.52*
scheffe		ab	a	a	a	b	
유·초·중·고 학생수	1.61 (0.61)	1.36(0.58)	1.44(0.57)	1.55(0.58)	1.77(0.60)	1.93(0.55)	37.40***
scheffe		c	bc	b	a	a	
학생1인당 사교육비	9.90 (9.42)	1.25(1.42)	5.34(3.15)	9.24(4.81)	13.35(6.70)	20.27(12.20)	265.51***
scheffe		e	d	c	b	a	

*p<0.05, **p<0.01, ***p<0.001

직접적으로 관련된 학교급별 학생수에서 분위별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표 5>). 사교육비 부담이 높은 4, 5분위에서 가구주의 교육수준 중학교 이하는 보다 적게, 대학교 이상은 보다 많이 분포하여 가구주의 학력 수준이 높은 경향이 있고 직업은 관리 및 전문직과 준전문직 및 기술직에 보다 많이 분포한다. 4, 5분위에서는 주택과 자동차 보유율, 거처사용면적이 다른 분위에 비해 높게 나타나 자산 보유 상태도 보다 나은 것으로 나타났다. 거주하는 주거유형은 아파트에 거주하는 비율이 보다 높다. 5분위에서는 다른 모든 분위에 비해 중고등학생 수가 유의하게 많고 초등학생수는 1, 2, 3분위에 비해 유의하게 많게 나타났는데, 사교육비 부담이 두 번째로 높은 4분위에서는 초등학생수만이 1, 2, 3 분위에 비해 유의하게 많게 나타났다. 총학생수의 분포를 보면 사교육비 부담이 높은 분위에서 학생수가 보다 많다.

이상에서 사교육비 부담은 사교육을 필요로 하는 학교급별 학생수, 가계 경제, 가구주 개인 특성에 따라 다른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러한 변수들의 독립적인 영향을 살펴보기 위하여 사교육비 부담별 5분위 분포를 종속변수로 하고 가계의 사회인구학적 특성 변수들을 독립변수로 하여 다범주로지분분석을 한 결과가 <표 6>에 제시되었다²⁾. 분석결과 사교육비 부담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는 학교급별 학생수, 주택소유여부와 주택유형, 거처사용면적, 거주지, 가구주의 연령과 교육수준, 가구원수로 나타났다.

가계소득과 가구주직업, 맞벌이 여부는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초등학생과 중고등학생 수가 증가할수록 사교육비 부담이 가장 큰 5분위에 포함될 가능성이 유의하게 높다. 가구주 교육이 중학교 이하인 경우 사교육비 부담이 가장 큰 5분위에 포함될 가능성이 유의하게 낮으며, 주택을 보유할수록, 거처사용면적이 넓을수록 1분위보다 5분위에 포함될 가능성이 유의하게 높다. 4분위의 특성은 초등학생수의 로짓 회귀계수와 한계효과를 나타내는 회귀계수 모두 유의하게 나타나서 초등학생수가 유의하게 많고, 중고등학생수도 1분위에 비해 유의하게 많음을 나타내고 있다. 거주형태가 아파트이거나 서울에 거주할 경우 4분위에 포함될 가능성이 유의하게 높게 나타났다. 3분위에서는 초등학생수가 1분위에 비해 유의하게 많은 것으로 나타났고, 사교육비 부담이 가장 적은 1, 2 분위에서는 초등학생과 중고등학생 수가 유의하게 적고, 1분위에서는 사교육에 대한 필요성이 비교적 적은 유치원생과 대학생 수가 유의하게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2) 가구주 연령, 가구원수, 학교급별 자녀수가 동시에 회귀모형에 포함될 경우 다중공선성이 존재하는지 Condition Index를 통하여 검토한 결과 22.36으로서 다중공선성 문제는 심각하게

나타나지 않음.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은 독립변수에 대한 회귀계수는 분석표에 제시하지 않음.

<표 5> 사교육비 부담 5분위별 사회인구학적 특성

구분-빈도(열%)		1분위	2분위	3분위	4분위	5분위	X ²
가구주 교육수준	중학교 이하	45(20.00)	39(17.26)	24(10.62)	24(10.62)	16(7.08)	35.87***
	고등학교	97(43.11)	109(48.23)	116(51.33)	98(43.36)	107(47.35)	
	전문대	31(13.78)	16(7.08)	20(8.85)	26(11.50)	22(9.73)	
	대학교 이상	52(23.11)	62(27.43)	66(29.20)	78(34.51)	81(35.84)	
가구주 직업	관리·전문직	24(10.67)	26(11.50)	24(10.62)	33(14.60)	30(13.27)	34.05*
	준전문·기술	26(11.56)	21(9.29)	19(8.41)	30(13.27)	39(17.26)	
	사무직	30(13.33)	34(15.04)	45(19.91)	48(21.24)	44(19.47)	
	판매·서비스	28(12.44)	29(12.83)	28(12.93)	13(5.75)	19(8.41)	
	숙련기능	57(25.33)	47(20.80)	40(17.70)	44(19.47)	37(16.37)	
	생산노동	60(26.67)	69(30.53)	70(30.97)	58(25.66)	57(25.22)	
맞벌이	맞벌이	97(43.11)	98(43.36)	107(47.35)	101(44.69)	105(46.46)	1.27
	비맞벌이	128(56.89)	128(56.64)	119(52.65)	125(55.31)	121(53.54)	
주택 소유	소유	114(50.67)	149(65.93)	156(69.03)	170(75.22)	175(77.43)	45.98***
	무소유	111(49.33)	77(34.07)	70(30.97)	56(24.78)	51(22.57)	
주택유형	아파트	76(33.78)	98(43.36)	105(46.46)	124(54.87)	122(53.98)	34.78***
	단독주택	119(52.89)	97(42.92)	85(37.61)	68(30.09)	72(31.86)	
	기타	30(13.33)	31(13.72)	36(15.93)	34(15.04)	32(14.16)	
거주지	서울	46(20.44)	35(15.49)	34(15.04)	48(21.24)	41(18.14)	4.81
	기타	179(79.56)	191(84.51)	192(84.96)	178(78.76)	185(81.86)	
자동차 소유	소유	138(61.33)	161(71.24)	160(70.80)	180(79.65)	162(71.68)	18.46***
	무소유	87(38.67)	65(28.76)	66(29.20)	46(20.35)	64(28.32)	
구분-평균(STD)							F값
가구주 연령		40.77(8.19)	14.40(6.56)	40.49(5.04)	40.59(4.04)	41.28(4.34)	0.34
Scheffe							
거처사용면적		17.64(6.23)	18.33(5.34)	18.18(5.26)	19.25(6.16)	20.44(6.39)	7.86***
Scheffe		b	b	b	ab	a	
가구원수		3.73(0.96)	3.96(0.87)	3.89(0.75)	4.13(0.69)	4.09(0.78)	8.90***
Scheffe		b	ab	b	a	a	
학생수	유치원생 수	0.52(0.58)	0.41(0.58)	0.29(0.50)	0.19(0.42)	0.10(0.34)	26.24***
	Scheffe	a	ab	b	c	d	
	초등학생 수	0.38(0.62)	0.57(0.67)	0.72(0.65)	1.03(0.71)	1.04(0.83)	38.60***
	Scheffe	c	bc	b	a	a	
	중고등학생수	0.46(0.60)	0.47(0.60)	0.54(0.69)	0.56(0.69)	0.79(0.80)	8.80***
	Scheffe	b	b	b	b	a	
	대학교이상수	0.13(0.34)	0.13(0.34)	0.06(0.27)	0.04(0.21)	0.04(0.19)	6.47***
	Scheffe	a	a	ab	b	b	
총학생수	1.66(0.76)	1.73(0.65)	1.70(0.62)	1.89(0.60)	2.04(0.57)	13.25***	
Scheffe		c	bc	c	ab	a	

*p<0.05, **p<0.01, ***p<0.001

<표 6> 사교육비 부담 5분위에 대한 다범주로지분분석 결과표(기준범주 1분위)-회귀계수(SE)

구분	1분위		2분위		3분위		4분위		5분위	
	Marginal Effect	회귀 계수	Marginal Effect	회귀 계수	Marginal Effect	회귀 계수	Marginal Effect	회귀 계수	Marginal Effect	회귀 계수
상수	2.06*** (0.43)	-8.65** (3.17)	0.81 (0.56)	-13.89*** (4.11)	-0.40 (0.69)	-24.55*** (5.58)	-2.46** (0.78)	-12.28** (4.60)	-0.80E-2 (0.59)	
가구원수	-0.28E-1 (0.17E-1)	0.31* (0.14)	0.33E-1 (0.19E-1)	0.14 (0.15)	-0.82E-2 (0.21E-1)	0.35* (0.16)	0.35E-1 (0.19E-1)	-0.22E-1 (0.16)	-0.32E-1 (0.18E-1)	
연령	-0.91E-1*** (0.20E-1)	0.36** (0.14)	-0.40E-1 (0.26E-1)	0.68*** (0.20)	0.33E-1 (0.33E-1)	1.08*** (0.27)	0.11** (0.39E-1)	0.48* (0.22)	-0.11E-1 (0.28E-1)	
연령제곱	0.11E-2*** (0.24E-3)	-0.42E-2** (0.16E-2)	0.57E-3 (0.31E-3)	-0.85E-2*** (0.23E-2)	-0.43E-3 (0.40E-3)	-0.14E-1*** (0.33E-2)	-0.14E-2** (0.47E-3)	-0.62E-2* (0.26E-2)	0.96E-4 (0.34E-3)	
교육-vs. 고등학교	중학교 이하	0.45E-1 (0.37E-1)	-0.56E-1 (0.30)	0.47E-1 (0.44E-1)	-0.44 (0.33)	-0.42E-1 (0.50E-1)	-0.53E-1 (0.35)	0.42E-1 (0.46E-1)	-0.82* (0.39)	-0.93E-1* (0.45E-1)
	전문대	0.46E-1 (0.42E-1)	-0.66 (0.37)	-0.87E-1 (0.55E-1)	-0.43 (0.37)	-0.38E-1 (0.53E-1)	0.72E-1 (0.38)	0.69E-1 (0.46E-1)	-0.22 (0.40)	0.91E-2 (0.43E-1)
	대학교 이상	-0.14E-1 (0.40E-1)	-0.52E-1 (0.33)	-0.31E-1 (0.44E-1)	0.83E-1 (0.33)	-0.61E-3 (0.43E-1)	0.21 (0.35)	0.24E-1 (0.40E-1)	0.22 (0.36)	0.22E-1 (0.35E-1)
주택 소유 여부	-0.81E-1** (0.30E-1)	0.41 (0.25)	-0.16E-1 (0.35E-1)	0.58* (0.26)	0.24E-1 (0.37E-1)	0.61* (0.28)	0.25E-1 (0.34E-1)	0.77** (0.29)	0.47E-1 (0.31E-1)	
유형-vs. 단독주택	아파트	-0.70E-1* (0.29E-1)	0.29 (0.24)	-0.28E-1 (0.34E-1)	0.34 (0.26)	-0.18E-1 (0.36E-1)	0.83** (0.28)	0.83E-1** (0.33E-1)	0.61* (0.28)	0.32E-1 (0.30E-1)
	기타	-0.26E-1 (0.38E-1)	0.12 (0.32)	-0.74E-2 (0.44E-1)	0.25 (0.32)	0.24E-1 (0.44E-1)	0.33 (0.34)	0.34E-1 (0.41E-1)	0.10E-1 (0.36)	-0.24E-1 (0.38E-1)
거처 사용면적	0.17E-2 (0.27E-2)	-0.24E-1 (0.22E-1)	0.32E-2 (0.31E-2)	-0.29E-1 (0.23E-1)	-0.45E-2 (0.32E-2)	-0.15E-1 (0.24E-1)	-0.10E-2 (0.28E-2)	0.33E-1 (0.24E-1)	0.71E-2** (0.24E-2)	
거주지	서울	-0.17E-1 (0.31E-1)	-0.21 (0.27)	-0.69E-1 (0.39E-1)	-0.15 (0.28)	-0.60E-1 (0.41E-1)	0.53 (0.28)	0.87E-1** (0.34E-1)	0.45 (0.30)	0.59E-1 (0.32E-1)
학생수	유치원생 수	0.80E-1** (0.31E-1)	-0.31 (0.25)	0.37E-1 (0.36E-1)	-0.56* (0.27)	-0.22E-1 (0.39E-1)	-0.71* (0.29)	-0.47E-1 (0.37E-1)	-0.76* (0.33)	-0.48E-1 (0.38E-1)
	초등학생 수	-0.13*** (0.25E-1)	0.24 (0.22)	-0.12*** (0.29E-1)	0.59** (0.23)	-0.45E-1 (0.30E-1)	1.30*** (0.23)	0.10*** (0.27E-1)	1.96*** (0.25)	0.20*** (0.25E-1)
	중고등학생 수	-0.68E-1* (0.29E-1)	-0.24 (0.26)	-0.15*** (0.34E-1)	0.23 (0.26)	-0.43E-1 (0.34E-1)	0.68** (0.26)	0.55E-1 (0.30E-1)	1.62*** (0.26)	0.20*** (0.26E-1)
	대학생 이상 수	0.83E-1* (0.39E-1)	-0.15 (0.31)	0.78E-1 (0.48E-1)	-0.67 (0.37)	-0.41E-1 (0.59E-1)	-0.76 (0.43)	-0.53E-1 (0.60E-1)	-0.90* (0.45)	-0.66E-1 (0.57E-1)
가계소득	-0.16E-3 (0.12E-3)	0.12E-2 (0.94E-3)	0.59E-4 (0.12E-3)	0.16E-2 (0.95E-3)	0.15E-3 (0.12E-3)	0.15E-2 (0.98E-3)	0.11E-3 (0.11E-3)	0.25E-4 (0.10E-2)	-0.16E-3 (0.10E-3)	
Log-likelihood	-1575.55***									
Pseudo R ²	13.29									

*p<0.05, **p<0.01, ***p<0.001

이상의 결과에서 가계의 사교육비 부담에 영향을 미치는 일 관되고도 가장 강력한 요인은 학교급별 학생수로 나타났다. 사교육비 부담이 가장 적은 1분위에서는 사교육에 대한 수요가 적은 대학생과 유치원생 수가 유의하게 많고, 사교육비 부담 수준이 높은 분위로 올라 갈수록 학교급별 학생 수의 회귀계수와 한계효과에서 초등학생과 중고등학생 수의 영향이 점진적으로 강력하게 나타나고 있다. 2, 3, 4, 5 분위는 횡단자료를 이용하여 사교육비 부담 수준별로 가계를 구분한 것이지만 분위별 특징적인 학생의 구성은 분위 간 이동이 마치 한 가계의 자녀 성장에 따른 학교급의 이행경로와 흡사하게 진행되고 있어서 가계가 생

애주기 단계를 거쳐 가는 동안 경험하는 종단적인 사교육비 부담의 이행 경로를 반영하는 것처럼 보인다. 첫 자녀가 초등학교에 입학하면서부터 사교육비 부담이 생기기 시작하여(3분위) 첫 자녀가 중고등학교에 다니고 다음 자녀가 학교에 다니고 있는 경우(5분위) 사교육비 부담이 절정에 달하게 된다. 이러한 결과는 우리나라 사교육비 문제는 학생이 있는 거의 모든 가계가 필연적으로 겪는 우리 사회의 구조적인 문제임을 시사하고 있다.

다른 모든 조건이 같을 때 사교육비 부담수준이 높은 4, 5분위에서는 공통적으로 거주하는 주택 유형이 아파트인 경우가 유의하게 많다. 아파트에는 많은 가구가 밀집되어 있어서 아파트

상가나 주변에 학원이 함께 들어서 있는 경우가 많고 수강생들의 이동을 돕는 교통편의를 제공하는 경우가 많아서 아파트에 거주하는 경우 비교적 편리하고 용이하게 사교육에 접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또한 거주지의 밀집성은 같은 지역 내에 같은 학교에 다니는 또래를 확인하는 것이 용이하고 사교육에 대한 정보 교류와 서로 사교육을 부추기는 경쟁적 분위기가 조성되기 쉽다. 주택 유형의 유의한 효과는 사교육 시장 환경 여건도 사교육비 부담에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간접적으로 반영하는 것 같다. 사교육비 수준이 높은 4분위에서 사교육시장이 발달한 서울 지역 거주자가 유의하게 많은 결과도 사교육 시장 여건이 가계의 사교육비 부담에 영향을 미친다는 증거로 간주 될 수 있다³⁾.

주택 소유 여부는 중간 수준(3분위)이상의 사교육비 부담과 유의한 관계가 나타나고 있는데, 경제적으로 보다 안정된 가계에서 사교육비에 보다 많이 부담한다고 볼 수 있지만, 1, 2분위에는 대학생이 있는 가계뿐 아니라 유치원생이 있는 가계가 상대적으로 보다 많이 분포하기 때문에 가족생애주기가 전반부이며 아직 주택을 마련하지 못한 가계가 1, 2분위에 보다 많이 분포한데 기인한 결과일 수도 있다.

다른 한편 자산보유 정도를 반영하는 거처사용 면적이 사교육비 부담 수준이 높은 5분위에서 유의하게 넓게 나타난 결과는 사교육비 부담과 가계의 자산 보유 수준과의 관계가 간접적으로 나타난 것으로 생각된다.

이상의 분석 결과는 선행연구와 다소 다른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 사교육비 부담은 주로 학교급별 학생수에 따라 결정되는 것으로 나왔는데, 이러한 결과는 사교육비 문제는 가계형편을 막론하고 학생이 있는 우리나라 가계에서 자녀 성장에 따라 부담이 증가하는 보편적인 문제이고 우리나라 교육의 구조적인 문제임을 시사한다. 높은 수준의 사교육비 부담은 서울 지역 거주자와 아파트거주자에게 보다 높게 나타나 사교육 시장 환경이 사교육비 부담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된다. 사교육비 부담이 가계소득이나 가구주의 학력이나 직업 등 가족 배경 변수와 전반적으로 유의한 관계가 나타나지 않고 있지만 가장 높은 수준의 사교육비 부담은 거처면적이 넓을수록 가능하고 가구주 학력이 낮은 경우 가능성이 유의하게 낮은 결과는 가계의 경제적인 여력이 과도한 사교육비 지출과 연관이 있음을 시사한다.

2. 사교육비 부담이 소비지출에 미치는 영향

사교육비 부담이 소비지출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알아보기 위하여 비목별 소비지출 비중과 소비지출 금액을 종속변수로 하고 사교육비 부담 5분위를 더미 독립변수로 포함하여 회

귀분석을 하였다⁴⁾. 사교육비 부담 분위 더미 변수의 기준변수로는 사교육비 부담 수준이 가장 낮은 1분위로 하였다. 따라서 사교육비 부담 각 분위 더미변수의 회귀계수는 사교육비 부담이 증가함에 따라 1분위에 비해 어느 정도 지출 비중과 금액이 차이가 나는지 알려준다. 소비지출에 미치는 다른 변수의 영향을 통제하고 사교육비 부담의 독립적인 영향을 살펴보기 위하여 가구원수와 가구주 특성 변수, 맞벌이 여부, 주택소유 여부 및 주거유형, 거처면적, 자동차 소유 여부 등 관련된 변수들을 모두 포함하여 최초의 회귀분석을 실시하고 그 가운데 각 소비지출비목에 유의수준 0.05에서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변수들만을 독립변수로 포함하여 최종적인 분석을 하였다. 최종분석에서 가계소득과 사교육비 부담 5분위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학생수 변수들은 통제변수로서 모든 회귀모형에 포함하였다. 지출비목에 따라 가구원수, 가구주 연령, 학생수, 사교육부담 5분위 등 서로 상관이 있는 변수들이 회귀모형에 독립변수로 포함되는 경우가 있어서 다중공선성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지 Condition Index를 통하여 검토한 결과 모든 회귀식에서 최저 9.76에서 최고 35.82 사이의 수치로 나타나 비목별 회귀모형에 다중공선성 문제가 심각하게 나타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회귀모형은 Seemingly Unrelated Regression (SUR) 모형 분석 방법을 적용하여 추정하였고 결과는 <표 7>과 <표 8>에 나타나 있다.

회귀모형이 적절하게 추정되었는지 검토하기 위하여 사교육비 부담 5분위별 사교육비 비중과 지출금액 추정치(<표 7>과 <표 8>에서 사교육비 부담 분위별 추정회귀계수)와 실제 관측치(<표 3>과 <표 4>에 제시된)를 <표 7>에서 비교하여 보았다.

<표 7> 사교육비 지출 비중과 금액 추정치와 관측치의 비교(1분위와 각 분위 사이의 편차)

		2분위	3분위	4분위	5분위
지출비중 (%)	관찰치	2.68	5.69	9.47	16.99
	추정치	2.69	5.64	9.38	16.75
지출금액 (만원)	관찰치	6	12	20	36
	추정치	4.21	9.56	16.71	31.45

사교육비 지출 비중은 회귀모형 추정치와 실제 관측치가 거의 일치하지만 지출금액은 실제 관측치보다 회귀모형에서 다소 낮게 추정되었는데, 모든 분위에서 일관되게 낮은 수치를 나타내어서 분석결과를 통하여 사교육비 부담 분위별 소비지출 차이의 비교가 가능하다.

사교육비 부담 수준이 교육비를 제외한 소비지출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알아보기 위하여 회귀분석 한 결과(<표 8>), 사교육비 부담 1분위와 2분위 사이에는 소비지출 수준에 유의

3) 대표적인 사례로 서울 대치동 아파트 지역에서는 사교육의 메카로 불릴 정도로 사교육시장이 발달되어 있다. 학원가는 아파트 주변에 집중적으로 분포하고 있고 사교육비 발달한 아파트 지역에 주택수요가 몰리면서 아파트가격이 상승하는 경향이 있는데 이러한 사례를 통하여 사교육 문제는 우리나라 부동산 가격에도 간접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볼 수도 있을 것 같다.

4) 최초의 모형에서는 사교육비 부담 분위 더미변수와 다른 독립변수간의 상호작용항을 포함하였으나 유의하지 않아 회귀 모형에서 제외하였다.

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지만 3분위부터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고 있다. 사교육비 부담이 중간 이상으로 큰 경우 사교육비 부담이 가장 낮은 1분위에 비해 소비수준이 유의하게 감소하는데, 학교 급별 학생수, 가계소득을 포함하여 다른 조건이 같다면 1분위에

비해 3분위 가계는 평균적으로 월평균 소비지출이 약 9.6만원, 4분위 가계는 약 21만원, 5분위 가계는 약 35만원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교육비 부담이 증가함에 따라 소비수준이 실질적으로 낮아짐을 보여준다.

<표 8> 소비지출 비목별 지출금액 회귀분석 결과-SUR모형 (회귀계수)

변수	사교육	공교육	식료품	의식	주거	광열수도	가구집기	
상수	-13.29***	-7.50***	-14.98	5.94***	4.52***	0.50	28.55**	
가구원수	0.79*	2.81***	2.87***	1.60***		0.88***	-0.77*	
가구주 연령			0.91*			0.03*	-1.33**	
가구주연령제곱			-0.01*				0.02**	
가구주 교육vs.고등 학교	중학교이하 1.17 전문대 2.82*** 대학교이상	-2.09 -0.10 0.62		0.33 2.07* 1.48*			-0.03 -0.96 1.03	
가구주 직업-vs.사 무서비스	관리·전문직 준전문·기술 숙련기능 생산노동		1.37 2.79*** 1.57* 1.62*					
비맞벌이			1.88***	-2.39***				
주택 소유 여부			1.26*		-1.42**			
유형-vs.단 독주택	아파트 기타	2.83*** 0.79		0.02 1.66*		-1.06*** -0.52*		
거처 사용면적		0.15**	0.22***			0.20***	0.11*	
거주지	서울	2.89***	1.03	3.64***		0.34		
가계소득		0.02***	0.01***	0.02***	0.03***	0.01***	0.003***	
학생수	유치원생 수 초등학생 수 중고등학생 수 대학생이상 수	0.48 0.62 3.59*** -0.07	4.36*** -1.91** 3.63*** 18.25***	-1.55* -0.28 -0.03 -2.36*	-1.82** -0.45 0.42 0.23	-0.50 0.19 0.50 -0.32	-0.24 0.02 -0.01 -0.15	0.90 1.35* 0.32 -0.46
사교육부담 vs.1분위	2분위 3분위 4분위 5분위	4.21*** 9.56*** 16.71*** 31.45***	3.78*** 2.18* 1.34 1.68	-0.82 -0.57 -1.77* -1.83*	0.18 1.12 0.99 -1.06	-0.32 -0.37 -0.81 -1.39	-0.32 -0.42 -0.34 0.02	-1.34 -1.29 -2.72** -3.69***

변수	피복	보건의료	교양오락	교통	통신	잡비	소비지출	
상수	0.82	0.73	-2.16	5.51	7.79**	-1.11	26.23***	
가구원수		1.07***					7.32***	
가구주 교육-vs.고 등학교	중학교이하 1.98** 전문대 1.76*** 대학교이상	1.48* 1.02 1.38*	-0.63 1.82* 2.85***			-0.64 3.78* 1.66	-2.47 7.88 11.52***	
가구주 직업-vs.사 무서비스	관리·전문직 준전문·기술 숙련기능 생산노동	-1.48 1.83* 0.52 1.16	2.06* -0.0004 0.96 2.19***			5.37** 0.99 0.69 0.41		
주택 소유 여부		1.27*						
거처 사용면적		0.14***	0.11*			0.40***	1.42***	
자동차 소유				8.41***	1.20***		10.72***	
거주지	서울		1.62**				10.20**	
가계소득		0.02***	0.01***	0.02***	0.04***	0.01***	0.08***	
학생수	유치원생 수 초등학생 수 중고등학생 수 대학교이상 수	-0.12 0.24 0.62 1.11	-2.36*** -1.29** -1.60*** -0.43	0.55 1.03* -0.58 -0.51	-0.36 2.43 0.08 1.50	-1.49** -0.44 0.83** 2.25***	0.02 1.94* 0.69 2.76	-8.17 4.01 1.43 2.75
사교육부담 vs.1분위	2분위 3분위 4분위 5분위	-0.25 -0.68 -1.35* -1.53*	-0.79 -1.10 -1.04 -2.46**	0.88 -0.29 -1.49 -1.17	-3.84 -4.62 -8.02** -12.05***	0.46 -0.25 -0.08 -1.12*	1.54 -0.27 -3.01 -7.93***	-5.10 -9.61* -21.00*** -35.88***
System Weighted R ²	31.97							

<표 9> 소비지출 비목별 지출비중 회귀분석 결과-SUR모형(회귀계수)

변수	사교육	공교육	식료품	외식	주거	광열수도	
상수	0.63*	3.43***	9.62***	14.32***	6.82***	7.02***	
가구원수		1.16***	0.32*		-0.59***		
가구주 교육vs.고등학교	중학교이하 전문대 대학교이상	0.09 -0.43 -1.09**					
가구주 직업-vs.사무 서비스	관리·전문직 준전문·기술 숙련기능 생산노동	0.60 -0.16 -1.28** -1.17**	-0.04 0.52 1.34 0.69*				
비맛별이			0.95***	-1.30***			
유형-vs.단독 주택	아파트 기타	1.56*** 0.81*		-0.71** 1.04**	-0.16 -1.65***	-0.66*** -0.24	
거처 사용면적		-0.11**				0.05***	
자동차 소유			-1.94***	-1.05***		-0.65***	
가계소득	-0.0008	-0.003*	-0.01***	-0.002	-0.003***	-0.01***	
학생수	유치원생 수	0.08	3.12***	-0.77	-0.83**	-0.18	-0.04
	초등학생 수	0.04	-0.99**	0.42	-0.03	0.43	0.21*
	중고등학생 수	0.59***	1.69***	0.09	-0.06	0.56*	0.01
	대학교이상 수	-0.24	7.28***	-2.18***	-0.98*	-0.52	-0.33
사교육부담 vs.1분위	2분위	2.69***	1.66**	-0.95*	-0.41	-0.50	-0.36*
	3분위	5.64***	1.00	-1.24**	-0.07	-0.57	-0.50**
	4분위	9.38***	0.59	1.62***	0.04	-1.09**	-0.43*
	5분위	16.75***	0.65	-1.91***	-1.13**	-1.61***	-0.31

변수	가구집기	피복	보건의료	교양오락	교통	통신	잡비	
상수	4.53	6.67***	4.90***	1.68	8.49***	11.43***	12.97***	
가구원수	-0.33***	-0.40***		-0.18				
가구주 연령				0.10		-0.14		
가구주연령제곱				-0.001		0.001		
가구주 교육-vs.고등학교	중학교이하 전문대 대학교이상			-0.23 0.72* 1.03***		0.12 -0.14 -0.63		
가구주 직업-vs.사무 서비스	관리·전문직 준전문·기술 숙련기능 생산노동	-0.46 -0.67** -0.76*** -0.76***	-0.63 0.60 0.37 0.53*	0.53 -0.27 0.35 0.76**				
비맛별이						-0.37*	0.71*	
자동차 소유					3.70***			
가계소득	0.01***	0.003***	0.001	.004***	0.002	0.003***	0.01***	
학생수	유치원생 수	0.46	0.16	-1.01***	0.36	-0.33	-0.88***	-0.22
	초등학생 수	0.26	0.13	-0.60**	0.19	0.34	-0.27	-0.09
	중고등학생 수	-0.29	0.16	-0.77***	-0.62**	-0.34	0.13	-1.04**
	대학교이상 수	-0.77*	-0.11	-0.65	-0.52	-0.71	0.45	-0.63
사교육부담 vs.1분위	2분위	-0.42	-0.31	-0.33	0.20	-1.54*	0.04	0.27
	3분위	-0.47	-0.51*	-0.56	-0.13	-2.06**	-0.26	-0.24
	4분위	-1.00**	-0.67*	-0.42	-0.47	-2.79***	-0.26	-1.25*
	5분위	-1.37***	-0.82**	-1.16***	-0.50	-4.39***	-0.82**	-3.39***
System Weighted R ²	40.36							

*p<0.05, **p<0.01, ***p<0.001

세부적으로 무슨 지출이 감소하였는지 살펴보면, 1분위에 비해 3분위에서 유의한 차이가 있는 비목이 나타나지 않고 있고, 4분위에서는 교통비가 한달 평균 약 7.9만원 줄었고, 이외에 가구집기, 식료품비, 피복비의 지출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5분위에서는 월평균 교통비 약 12만원, 잡비 약 7.9만원을 비롯하여 가구집기, 보건의료비, 식료품비, 피복비, 통신비 지출이 감소하였다. 5분위에서 지출이 감소하지 않은 비목은 주거비, 광열비의 필수적 지출과 외식비, 교양오락비로 나타났다.

다른 모든 조건이 같다면 3분위에서는 전체 소비지출 규모는 유의하게 감소하되 어느 한 비목에 집중된 것이 아니라 비목 전반에 걸쳐 소폭으로 지출을 조정함으로써 세부적인 소비생활의 급격한 변화가 나타나지 않은 것 같다. 4, 5분위에서는 사교육비 지출 수준이 커짐에 따라 소비 조정이 보다 확대되었는데, 조정 경로를 보면 1차적으로 교통비와 식료품비, 피복비와 가구집기비가 감소하고, 그 이후에 잡비, 통신비, 보건의료비, 통신비가 조정됨을 알 수 있다. 변동 규모면에서 교통비와 잡비가 가장 신속적으로 변경이 가능한 지출로 나타났다.

비목별 지출 비율의 차이를 살펴보면(<표 9>), 사교육비 부담 분위사이에 보다 뚜렷한 차이가 나타났다. 1분위에 비해 2분위에서는 식료품비, 광열수도비, 교통비의 비중이, 3분위에서는 위와 동일한 3개 비목과 더불어 피복비의 지출 비중이, 4분위에서는 위의 4개 지출비목에 더하여 주거비, 가구집기, 잡비의 비중이, 5분위에서는 앞 분위에서 이미 줄어든 7개 비목 가운데 광열수도비를 제외한 6개 비목에 더하여 외식비, 보건의료비, 통신비의 비중이 유의하게 낮게 나타났다.

이상의 회귀분석 결과를 간추려서 <표 10>에 정리하여 보았

다. 2분위에서는 사교육비 비중이 증가함에 따라 지출 배분이 조정되었는데, 필수적인 지출배분을 소폭으로 조정하는데 그치고 소비지출 수준은 유의하게 감소하지 않다. 3분위에서는 피복비 지출 비중이 추가적으로 감소하였고 총소비지출 수준은 유의하게 감소하였지만 비목별 지출 수준에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아서 3분위까지는 소비수준이 급격하게 떨어진 것 같지 않다. 그러나 4분위부터 지출배분의 조정이 선택적 지출까지 확대되고(5분위에서는 거의 모든 비목에 대한 배분이 감소함) 총 소비지출과 여러 비목의 지출 수준도 큰 폭으로 감소하여 생활 수준이 낮아지는 결과가 나타났다.

소비지출 조정 과정을 살펴보면 사교육비 부담이 증가하면 먼저 교통, 식품, 광열비의 생활필수적인 지출배분을 조정하지만 필요이상으로 지출된 부분만 삭감되어 실질적인 지출 수준은 그대로 유지할 수 있었다. 점차로 사교육비 부담이 증가할수록 배분 조정 폭이 커지고 보다 많은 지출 비목으로 조정이 확산되며, 결국 5분위에서는 소비생활 전 분야에 걸쳐 소비수준이 감소됨을 보여준다. 앞 절에서 살펴보았듯이 3, 4, 5분위의 학교급별 학생수 변화 추이를 보면 분위별 이동이 마치 자녀 성장에 따른 중단적인 가계의 생애주기 이행을 반영하고 있는데, 이러한 관점에서 분석결과를 조망하면, 자녀가 성장하여 학령기 자녀 수가 1명에서 2명으로 늘고, 초등, 중고등학교로 학교급이 올라감에 따라 사교육비 부담이 증가하고 이 기간 동안 다른 소비생활을 희생하고 있음을 시사한다. 사교육비 부담으로 가장 크게 영향을 받은 소비분야는 교통비와 잡비이며, 생활의 편리함과 사회생활과 관련된 지출-생활에 운택을 주는 지출-이 감소하고 소비생활의 질이 낮아짐을 알 수 있다.

<표10> 1분위 대비 각 분위별 소비지출 격차(회귀분석결과 요약)

사교육비 부담분위	소비지출 수준 감소분 (만원)	지출배분 차이		지출금액 차이	
		감소한 비목(%)	전 분위에 비해 추가적으로 감소한 비목(%)	감소한 비목 (만원)	전 분위에 비해 추가적으로 감소한 비목(%)
2분위	유의한 차이 없음	교통(-1.54%) 식료품(-0.95) 광열수도(-0.36)	-	유의한 차이 없음	-
3분위	-9.6만	교통(-2.06) 식료품(-1.24) 광열수도(-0.50)	피복비(-0.51)	유의한 차이 없음	-
4분위	-21만	교통(-2.79) 식료품(-1.62) 피복비(-0.67) 광열수도(-0.43)	주거비(-1.09) 가구집기(-1.00) 잡비(-1.25)	교통비(-8만) 가구집기(-2.7만) 식료품(-1.77만) 피복비(-1.4만)	-
5분위	-35.9만	교통(-4.39) 잡비(-3.39) 식료품(-1.91) 주거비(-1.61) 가구집기(-1.37) 피복비(-0.82)	보건의료(-1.16) 외식(-1.13) 통신(-0.82)	교통비(-12만) 가구집기(-3.7만) 식료품(-1.83만) 피복비(-1.5만)	잡비(-7.9만) 보건의료(-2.5만)

V. 결 론

본 연구에서는 2002년 통계청 도시가계조사 자료를 사용하여 유치원, 초, 중, 고등학생 자녀가 있는 가계를 대상으로 첫째, 사교육비 부담 정도를 알아보고, 둘째, 사교육비 부담과 관련된 변인이 무엇인지 살펴보고, 셋째, 가계의 사교육비 부담이 다른 소비지출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고찰하여 보고자 하였다.

분석결과 가계의 사교육비부담 정도는 전체 소비지출의 약 7.76%를 차지하고, 월평균 사교육비 지출 금액은 약 16만원으로 나타났다. 사교육비 부담 분위별로 사교육비 지출 부담에서 큰 차이를 나타내서 1분위에서는 사교육비 비중이 1%에도 못 미치고 월평균 지출 금액이 1만원에 그친데 비해 5분위에서는 비중이 18%, 월평균 지출이 약 37만원에 달한다. 즉 가계에 따라 사교육비 지출 부담의 차이가 매우 크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둘째, 사교육비 부담이 차이 나는 가장 주된 원인은 학교급별 학생수이고, 이외에 거주 주거형태, 거주지역, 거처사용 면적이 사교육비 부담 정도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녀의 학교급이 높아지고 그 수가 증가할수록 사교육비 부담 정도가 증가하고, 아파트에 거주하거나 서울에 거주할 경우, 달리 표현하면 사교육 시장이 발달한 환경에서 생활하는 경우 가계의 사교육비 부담이 보다 큰 경향이 있으며 거처사용 면적이 보다 넓은 가계에서 사교육비 부담을 많이 하고 있다.

셋째, 사교육비 부담이 소폭으로 증가할 때는 일차적으로 필수적인 지출에 대한 배분을 세심하게 조정함으로써 다른 소비수준이 낮아지는 것을 방어할 수 있었지만 사교육비 부담이 증가함에 따라 결국은 소비생활 전반에 걸친 지출 배분의 조정과 아울러 실제 생활수준의 저하를 경험하게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부분의 선행연구가 사교육비는 가정배경 변인에 따라 차이 난다는 증거를 제시함으로써 교육기회 불평등의 관점에서 문제를 제기하고 해결을 촉구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크다면 본 연구는 사교육비 문제가 학령기 자녀를 가진 모든 가계가 짊어지고 있는 우리 사회의 구조적인 문제이며 사교육 시장 여건이 가계의 사교육비 문제에 작용한다는 구체적인 증거를 나타냄으로써 선행연구와는 다른 결과를 제공하고 있다. 이러한 결과는 교육 자체에 대한 적극적인 정책적 조치와 정부의 사교육 시장에 대한 개입이 사교육비 문제 해결에 효과가 있을 것임을 시사한다.

사교육에 대한 보편적 수요가 존재하는 상황에서 사교육 시장은 필연적으로 발달하게 되고 시장의 논리에 따라 경쟁력이 있는 가계에서 높은 가격을 지불하면 보다 양질의 교육서비스를 제공받게 된다. 교육은 모든 국민에게 보편적으로 제공되어야 하는 공공 서비스이어야 한다는 명제가 당위성을 갖는다면 사교육 수요는 이에 부응하는 공공 서비스를 공급함으로써 공적으로 흡수되어야 마땅하다. 공교육의 내실화와 학생 개개인의 교육적 요구에 차별적으로 반응하는 선진적인 교육시스템을 구

축하는 것이 고질적인 사교육 문제에 대한 근본적인 처방이 될 것이다.

본 연구결과는 사교육비 문제에 대한 단기적인 처방으로서 정부가 사교육시장에 보다 적극적으로 개입하여 규제하는 것이 필요함을 시사한다. 교육서비스의 공공재적 특성을 감안하면 사교육 시장에 대한 정부 개입은 정당한 것으로 간주될 수 있다. 실효성 있는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서 어느 정도의 사교육 공급자 자격 제한이 적절할지, 가격규제가 필요한지, 규제에 따른 사교육 시장 음성화를 방지하기 위해 어떠한 조치가 있어야 하는지, 2004년 교육인적자원부가 내놓은 “사교육 수요 공교육체제 흡수” 방안이 어느 정도 효과가 있고 현행의 사교육 수요를 어느 정도 흡수하는지에 대해 면밀한 연구 분석이 반드시 선행되어야 함을 제안하고자 한다.

본 연구의 분석 결과는 사교육비 부담이 현행의 최저 수준으로 경감된다면 현재 사교육비 부담이 최고에 달한 가계에서는 평균적으로 한달평균 약 35.9만원에 해당하는 경제적인 여유분이 추가될 수 있음을 나타내고 있다. 따라서 사교육 경감 효과가 발휘된다면 가계의 생활의 질이 실질적으로 향상될 수 있을 것이다. 우리나라 사교육비 문제 해결은 자녀 교육에 대한 경제적 부담을 현저히 감소시킴으로써 간접적으로는 출산을 저하를 방지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본 연구는 사교육비 부담과 사교육비 부담이 소비지출에 미치는 영향을 가족의 사회인구학적 특성을 중심으로 고찰하고 있다. 사교육비 부담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학교급과 학생수를 모두 통제하며 사교육비 부담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변수의 영향을 설명하려고 시도하였지만 실제로 사교육비 부담과 보다 더 관련이 있는 요인은 학생의 학습성적을 중심으로한 학업 능력일 것이다. 따라서 향후 연구에서는 사교육비 부담과 관련된 보다 직접적인 원인을 설명하고 실제에 교육환경 적용 가능한 해결방안을 모색하기 위해서는 학생의 성취도와 열망, 적성, 장래 희망 등 학생의 능력과 자질, 성격 등의 영향을 분석할 필요가 있다.

- 접수 일 : 2005년 02월 28일
- 심사 일 : 2005년 03월 18일
- 심사완료일 : 2005년 05월 04일

[참 고 문 헌]

- 교육인적자원부(2004). 공교육 정상화를 통한 사교육비 경감대책. www.moe.go.kr.
- 김시열·박배진(1999). 사교육비 부담의 대처행동에 관한 연구. **대한가정학회지**, 37(10), 67-79.
- 김인숙·여정성(1996). 가계의 사교육비 지출과 관련요인. **한국**

가정관리학회지, 14(1), 137-149.

- 김현진(2004). 사교육비 지출 결정 변인 구조 분석. **교육행정학 연구**, 22(1), 27-45.
- 문숙재·김순미·김성희(1996). 자녀의 인적자본 형성을 위한 교육비 지출의 결정요인. **한국가정관리학회지**, 14(2), 171-184.
- 박기백(1998). 사교육비 결정요인의 실증분석. **재정논집**, 13(1), 149-163.
- 박미희·여정성(2000). 개인과 가계의 사교육비 지출 유형분석. **대한가정학회지**, 38(12), 189-206.
- 양승실(2001). 공교육과 사교육의 역할 기능 재정립. <http://www.inc.or.kr/cica/column5.htm>.
- 유형선·윤정혜(1999). 도시가계의 사교육비 지출 규모의 결정요인 - 일반계 고등학생의 과외사교육비를 중심으로. **한국가정관리학회지**, 17(4), 159-171.
- 이승신(2002). 가계의 사교육비지출과 경제적 복지. **대한가정학회지**, 40(7), 211-227.
- 이은우(2004). 사교육비 지출행위에 대한 경제분석. **경제연구**, 22(2), 1-31.
- 정영숙(1996). 개인의 인적자본투자율과 경제적 복지. **소비자학 연구**, 17(4), 1-13.
- 정영숙(1999). 사교육비 지출이 소비패턴의 내재적 구조에 미치는 영향. **소비자학 연구**, 20(4), 61-73.
- 통계청(2001). 2000 사회통계조사.
- 통계청(2005). 2004 사회통계조사.
- Becker, G. S. & Tomes, N. (1986). Human capital and the rise and fall of families. *Journal of Labor Economics*, 4 (3), s1-s47.
- OECD(2004). Education at Glance 2004.